



# EAI **여론브리핑** 제32호

EAI · CCGA · 중앙일보 공동기획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후원

## 동아시아의 소프트파워 기초분석 Soft Power in East Asia



### 프로젝트의 배경

소프트파워가 미래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겸비한 국가가 21세기 동아시아질서 변환 경쟁을 주도한다. 현재 세계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 재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물론, 미국의 잠재적 패권경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질서 변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일본, 실용외교를 앞세워 선진국 진입 목표를 분명히 한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소프트파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소프트파워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목표설정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을 뿐 아니라 투입되는 자원 역시 하드파워 부문에 집중되고 경쟁에 들이 붙는 자원과 인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볼 때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다의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가 국제 현실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나 반대로 소프트파워의 형성과 행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소프트파워연구의 방법

일반적으로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와 달리 객관적/물리적 힘에 기초한 '강제력' 대신 '매력과 공감력'을 기반으로 다른 행위자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소프트파워 연구는

첫째, 정치 · 경제 · 군사영역의 객관적 지표보다 제도 및 신뢰감, 지도력 등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이미지와 지적 · 문화적 자원의 친화력 및 확산력 등 주관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파워 개념은 본성상 GDP, 군사력 규모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도 각국의 정책결정자 및 일반 국민의 감정 · 태도 · 가치관을 포괄하는 주관적 인식영역에 대한 조사를 수반해야 한다. 각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는 소프트파워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둘째, 한 국가에 대한 감정 · 태도 · 가치관 등은 관찰자의 일방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기보



다는 상대방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한 국가 차원의 독립적 인식보다도 양자간 혹은 다자간 상호인식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진다. 결국 비교 가능한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국가 간 비교인식조사는 소프트파워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론이 된다.

### **EAI · CCGA 소프트파워 연구의 특징**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 시카고세계문제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대표 John Bouton)는 중앙일보와 함께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동아시아의 소프트파워(영문명: Global Views 2008: Soft Power in East Asia)”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동일한 질문항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의 여론을 비교 조사했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특징이자 강점은 동아시아 이해관계의 주요 당사국인 미 · 중 · 일·한뿐 아니라 동남아 2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조사결과도 포함하고 있어 제3국의 객관적인 시각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 **본 프로젝트 연구목적과 방향**

-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파워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정립하고 각국의 소프트파워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소프트파워 이론의 과학화와 구체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감정 · 태도 · 평가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는 요소들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인과논리를 찾아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 경험적 분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화두로 떠오른 소프트파워 키우기 전략이 무엇이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즉 동아시아 각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의 현주소와 정책적 함의를 6개국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끌어낸다.
- 현재 각국의 소프트파워 구축전략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설명 뿐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소프트파워의 분포와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예측하는 것도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 한국에서 그동안 소프트파워 논의가 주로 정부나 학계 일부에 편중되어 있던 한계를 벗어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 EAI와 중앙일보의 공동된 문제의식이다.

### **본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EAI와 중앙일보는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 도약의 과제로서 소프트파워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2007년 10월 “EAI 국가대전략 강연회”와 2008년 2월 “조셉나이 소프트파워 강연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왔다. 이번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국제조사는



주변 강국 틈에서 21세기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소프트파워 강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본 조사는 한국이라는 국내적 차원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학술적 · 정책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공유는 세계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련 분야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 Soft Power 국제연구팀

국제비교 연구팀의 구성도 자랑거리다. 이숙종 EAI 원장(성균관대)과 세계적인 공공외교 전문가인 Clinggendael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의 메리슨(Jan Melissen) 교수가 전체 연구를 책임지고 EAI와 CCGA가 전 조사과정 및 발표과정을 주도한다.

EAI 연구팀은 2004년부터 CCGA · GlobeScan · 매릴랜드대 PIPA 등과 한국에서 국제여론연구 영역을 개척해오면서 연구실적과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 과정을 주도해온 이숙종 원장,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신화 교수가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 및 경험적 데이터 분석에 전념해온 이용욱 고려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새로 연구팀에 합류했다.

CCGA 연구팀에서는 미국 대외정책 여론연구 전문가인 부톤(J. Bouton) CCGA 대표를 비롯해 대외인식 연구 분야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페이지(B. Page) 교수와 신진 시에(Tao Xie) 교수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분석을 담당하였다.

대만을 대표하는 석학 주윤한 교수와 현재 부르킹스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팡(Zhongying Pang) 교수, 후계(d'Hooghe) 연구원이 중국 측의 시각으로 본 소프트파워를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노구치 교수와 안보여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아키코 후쿠시마 교수, 버거(T. Berger)교수 등이 참여한다.

EAI는 본 연구가 이론적, 정책적으로 소프트파워 연구의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EAI가 대형 국제프로젝트를 주도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소프트파워의 성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공동연구책임

이숙종 (EAI 원장/성균관대 교수)

Jan Melissen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gendael')

○ 미국 측 참가자

M. Bouton (CCGA 대표) · B.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 S. Kull (PIPA) · C. Whitney



(CCGA), T. Berger (Boston University)

○ 네덜란드 측 참가자

Ingrid d'Hooghe (Clingendael)

○ 중국 및 대만 측 참가자

Chu Yun-han (Academia Sinica) • X. Tao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 Zhongying Pang (Renmin University/Brookings Institute)

○ 일본 측 참가자

Akiko Fukushima (Japan Foundation/ Aoyama Gakuin University) • Takashi Inoguchi (Chuo University)

○ 한국 측 참가자

연구팀장 :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이신화 (고려대 교수) • 이용욱 (고려대 교수) • 지병근 (조선대 교수) • 김하정 (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간사 : 곽소희 (EAI 연구원) • 신영환 (EAI 연구원)

연구지원 : Lisa Collins (EAI 인턴) • Matthew J. Lauer (EAI 인턴)



## I. 미·중·일·한 4개국 소프트파워 비교

### 1. 4개국(미·중·일·한) 소프트파워 측정

종합순위 :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 순  
 미국과 일본 : 미국이 우세한 가운데 미일 양국이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주도  
 한국 소프트파워 : 중국보다 우위, 인적자본 영역에서만 밀려

#### 1. 본 분석이 기초하는 몇 가지 가정

소프트파워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해석의 준거에는 뚜렷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분석에서는 몇 가지 시론적 차원의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 및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프트파워는 외부의 평판과 해당국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죠셉나이는 주로 외부에서 본 한 국가(주로 미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 분석을 통해 그 나라의 소프트파워의 크기와 주요 자원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외부의 평판(reputation)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평판이 소프트파워의 객관적 자원이라고 본다면 내부의 자신감은 소프트파워 자원을 현실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일정한 관계를 지닌다. 혹자는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의 연장으로 보며 혹자는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로부터의 독립적인 힘으로 본다. 따라서 조사된 국가들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셋째, 소프트파워 자원을 평가할 때 절대적 평가 못지않게 상대적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힘의 자원이 실질적인 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의 크기보다 상대국과의 비대칭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문화 영역에 평판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평판 역시 높아 그 격차가 크지 않다면 이 영역은 소프트파워 자원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주변의 평판이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높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평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면 오히려 이 자원이 그 나라의 현실화된 소프트파워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1) 자기 평가(self-evaluation) : national pride

4개국 평가, 중국과 미국이 선도하고 일본 한국이 밀려  
문화영역 자부심이 정치/경제분야 자부심을 능가,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모두 높아  
정치/경제영역 격차 커 : 중국은 정치/경제 자신감 총만, 일본 · 한국은 자기혐오 심각  
정치체제 자부심 : 중국 70% > 미국 62% > 일본 23% > 한국 10%

특정국가 국민이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를 보면 4개국 모두에서 역사/스포츠/문학과 같은 문화적 차원에 대한 자부심이 정치체제, 경제와 같은 기본적인 국력평가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능가했다. 그러나 이 중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네 나라 공히 높게 나타났다.

국가 간 상대적 격차가 정치경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정치경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이 영역에서 미국국민들의 자부심을 능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자국 경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체제의 경우 한국 국민의 10%, 일본 국민들의 경우 2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소프트파워 행사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국민들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기 나라의 분야별 자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90%), 스포츠분야(90%), 과학기술(88%), 예술문학(75%), 정치(70%), 경제(69%) 순이었다. 정치, 경제부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국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두드러진다. 무려 95%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고, 역사, 예술문학, 스포츠 영역 등 문화적 요인에서 높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체제와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일본 역시 과학기술 > 예술문학 > 역사 > 스포츠 순으로 자부심 강도가 큰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51%로 응답자의 절반만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정치체제에 대한 극도의 자기 혐오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우 스포츠 분야(87%)를 필두로 높은 자신감을 갖고 과학기술(84%) > 역사(72%) > 예술문학(66%)가 뒤를 이었다. 이들 영역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서고 있는 반면, 정치체제, 경제적 자부심에서는 극도의 자기 혐오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에서는 25%,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10% 만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열명 중 8-9명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취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



[그림1] 자국 분야별 자부심 “자랑스럽다(매우 + 어느 정도)”(%)



## (2) 객관적 평가 : 외부의 평판(reputation)

외부의 평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한다. 감정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일체감(가치관 및 생활양식 공유 정도) 및 국가호감도를, 인지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 국가평가 및 지표와 이들로 구성된 종합지표를 산출하여 동아시아 각 국의 소프트 파워를 분석한다.

### 1. 감정적 차원 : 문화적 일체감 및 국가호감도

- 문화적 일체감 : 미일 vs 중국·동남아로 분류 가능, 한국은 고립
- 국가호감도 비교
  - 미국 호감도 개선, 중국호감도 추락 중, 일본 · 한국은 현상유지
  - 미국인, 동남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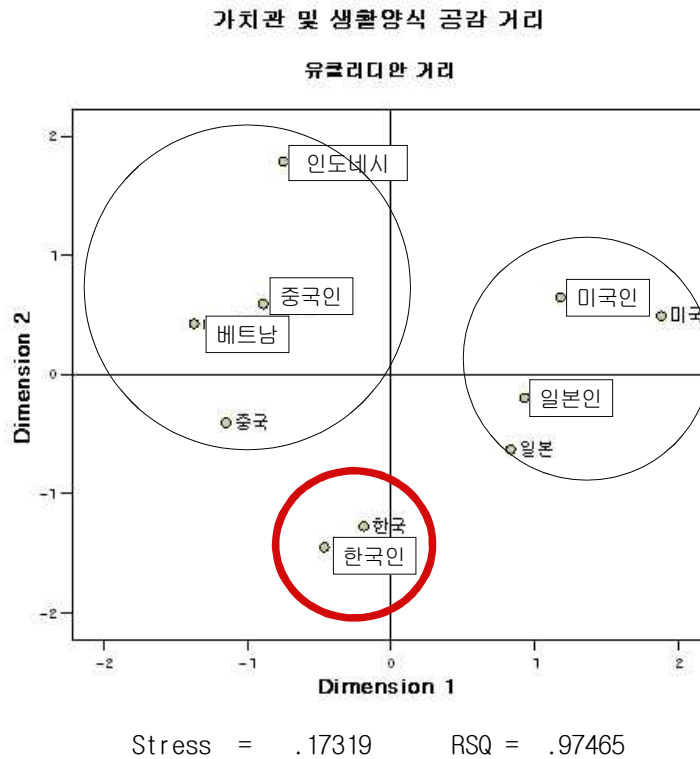
#### 문화적 일체감 : 미일 vs 중국·동남아로 분류가능, 한국은 고립

우선 조사 6개국에서 한·중·미·일 각 국과 자국 사이에 문화적 일체감(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 존재한다고 보는 응답비율을 거리로 환산하여 상호 위치를 비교해보았다. 즉 거리가 멀수록 상대국과 자국 사이에 문화적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국(사례)과 조사대상(변수)의 공간위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다차원동시척도(MDU, Multidimensional Unfolding) 방법을 적용했다.

그림에서 쉽게 확인되듯이 문화적 일체감 거리를 보면 일본인과 미국인인 서로 문화적 일체감이 높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인과 베트남인 등 동남아 국민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과 문화적 일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들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하지 않고 고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이나 중국, 미국 국민들은 한국과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 있어 동질감을 느끼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림2] 각국 국민들이 들이는 한·중·미·일 4개국과 문화적 일체감 거리



### 국가호감도

미국 호감도 개선, 중국호감도 추락 중, 일본 · 한국은 현상유지  
한국/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미국인·동남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인은 한국을 가장 선호

2008년 들어와 각종 국제여론조사 결과는 이라크전 이후로 계속 악화되어오던 미국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가 다소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BC · EAI 2008). 2006년도 EAI · CCGA 조사와 비교해보면 미국에 대한 태도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중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당사국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른 호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강점이 된다. 인도네시아(55.5도)와 베트남(67.6도)국민들은 일본보다는 다소 낮지만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우호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지만 미국국민(57.9도)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자랑거리이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65.5도, 베트남 국민은 68.4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교적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2004년 이래 계속 감소(44도→40도→30





도)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냉담(58도→57도→50도)해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경고음을 보내주고 있다. 일본역시 45도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는 못 미쳤고,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미국 보다 다소 더 우호적 반응을 보였을 뿐 베트남에서는 미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주변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2006년에 비해 5점 가량 호감도가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 볼 수 있는 중국에서 73점에 64.5점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동북공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냉각되고 반대로 중국에서 혐한감정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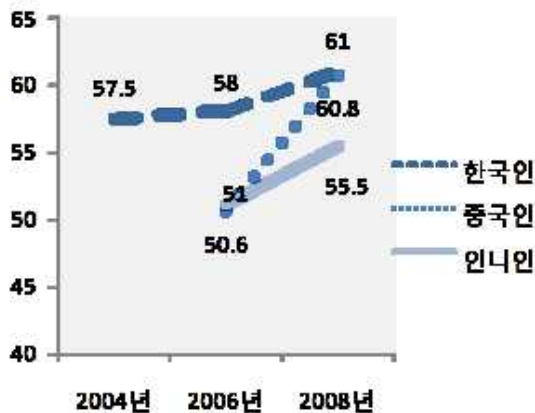
[그림3] 6개국 국민이 본 한미중일 4개국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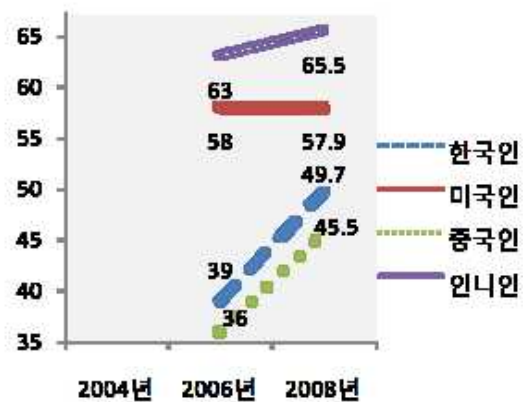
주1.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0(매우 비호감)-100(매우 호감)을 기준으로 응답한 점수의 평균

[그림4] 동아시아 4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2004-2006)

a. 미국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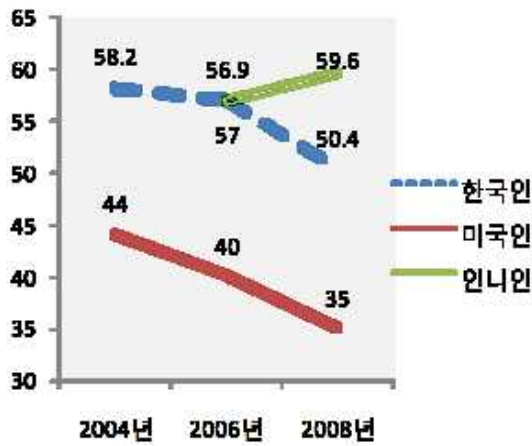


b. 일본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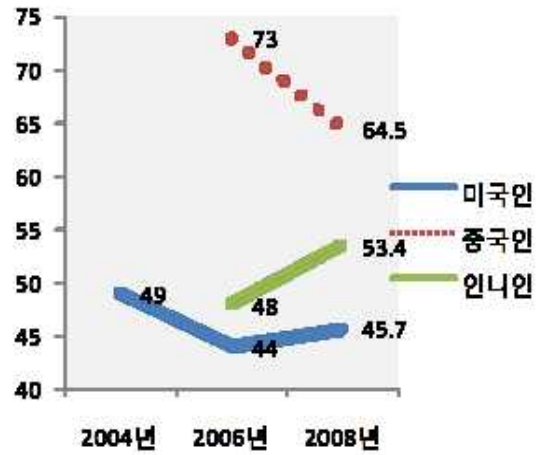




c. 중국에 대한 호감도



d. 한국에 대한 호감도



주1.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0(매우 비호감)-100(매우 호감)을 기준으로 응답한 점수의 평균

2. 인지적 차원 : 분야별 평가 및 종합평가 “미일 쌍끌이 · 중국경쟁력 뒤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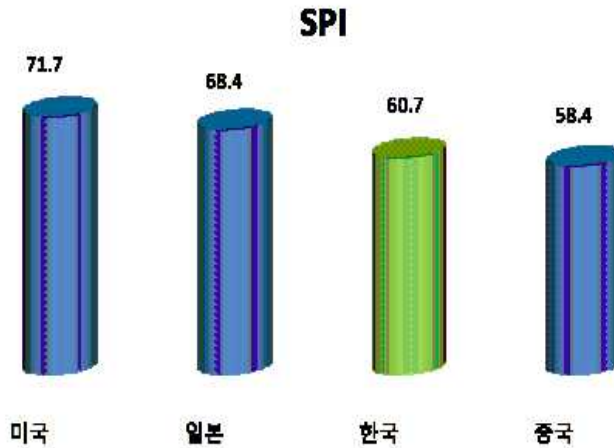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개별지표와 분야별로 종합한 분야별 지표, 각 분야별 지표의 평균을 구한 종합지표 크게 세 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소프트파워를 분석한다. 지표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종합지표(SPI)				
경제 (5개국 평균)	인적/기술/지식 (5개국 평균)	문화 (5개국 평균)	외교 (5개국 평균)	정치 (5개국 평균)
경제관계중요성 제품구매력 FTA 아시아경제영향 경제개발지원 인도적 지원 기업의 기여도 경제적 경쟁력 경제적 기회 기업가정신 다국적기업 생산품 질	언어 교육인력 과학기술 대학의 질	문화확산 평가 대중문화영향력 대중문화 긍정 영화/TV/음악 대중문화 문화유산 여행선호 대학의 질	외교수단중시 주권존중 신뢰/협력구축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리더십 북핵 해결 기여 중국/대만기여 아시아정책	인권존중 정치시스템



전체 종합순위로 보면 미국이 7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본이 68.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60.7점으로 중국 58.4점보다 근소하게나마 앞섰다. 소프트파워 부문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크게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5] 각국 소프트파워 종합평가지수(SPI) by CCGA



주1. 0(영향력 전혀 없다)-10점(매우 영향력 크다)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응답한 5개국(평가대상국 국민의 평가는 제외)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음

#### 미국 소프트파워 근소한 우세, 인적/지식기반에서 격차 유지

주관적 소프트파워 평가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 문화, 외교,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본에 미세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적자본/기술/지식기반에서만 비교적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발휘되는 초강대국 미국의 소프트파워의 힘은 주로 지식/인적자원 영역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소프트 파워 경쟁력 갖춰, 경제부분에서 한국/중국과 격차**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프트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기술/지식기반 부문에서 미국과 격차가 나타났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국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지역패권을 다투는 중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질적 도약을 꾀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중국/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소프트 파워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정치/문화 분야 높은 평가, 경제/인적자본 소프트 파워 미흡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는 뒤처지지만,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대등하거나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영역에서의 소프트파워는 순위로 보면 중국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인 점수에서는 정치/인적자원 영역과 함께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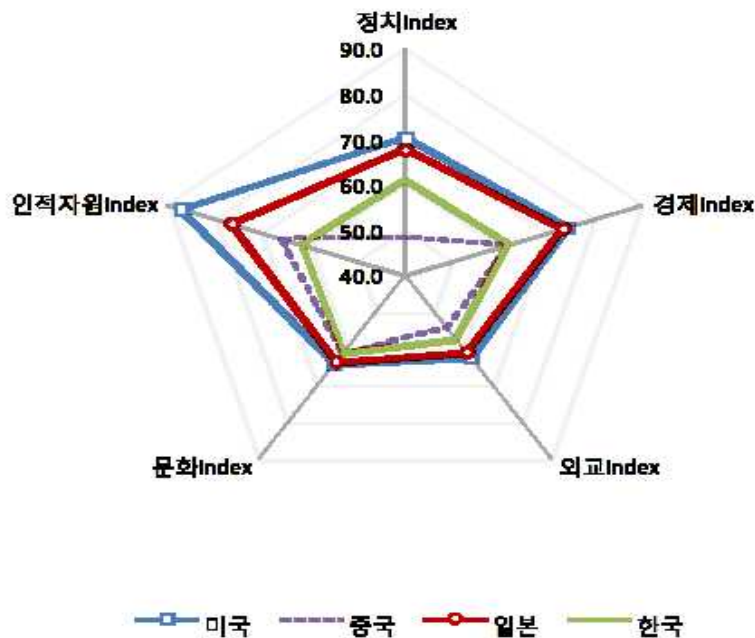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과 격차가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한국 소프트파워를 떠받치는 한축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 동아시아에서는 별무소득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크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2개국의 평가를 제외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 및 일본, 한국에서의 평가가 냉담한 편이었다. 특히 잠재적 패권경쟁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을 논외로 치더라도 한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에서 중국에 평가가 높지 않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강대국 대열에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동북공정을 계기로 대중국 인식이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의 티베트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동아시아 4개국 5대 분야 및 종합지표별 소프트파워 평가 지수

	정치index	경제index	외교index	문화index	인적자원index	종합SPI
미국	70.5	74.2	62.4	64.4	87.4	71.7
중국	48.5	61.8	54.2	61.2	66.2	58.4
일본	67.8	73.2	61	63.6	76.6	68.4
한국	61.0	61.8	57.4	61.2	62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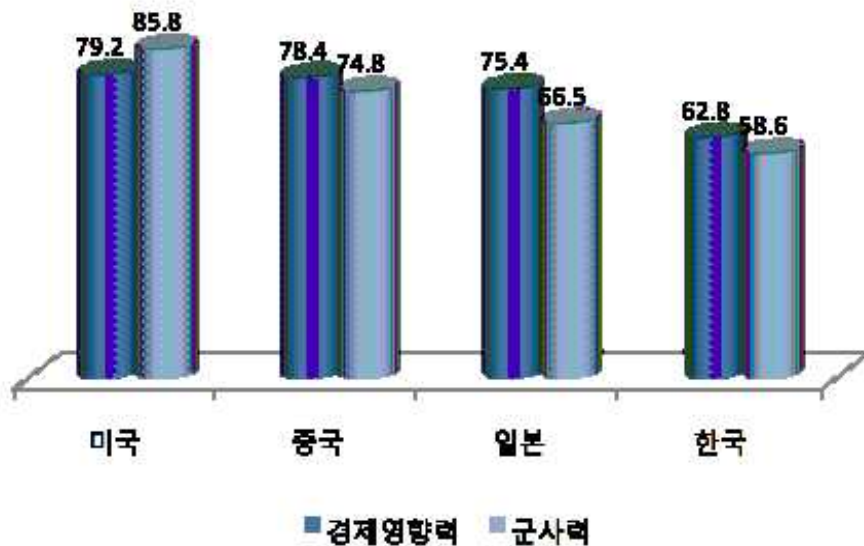




### 하드파워 중심으로 중국의 경쟁력 인정

동아시아 지역 국민들은 소프트파워 영역보다는 오히려 하드파워 영역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그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11 이후 미국 일방주의 외교로 인한 공공외교 부실을 틈타 중국은 소프트파워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는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아직은 성공적이지 못해 약하게 감지되거나 평가되고 있다. 대신 중국의 하드파워는 미국에 다소 못 미치기는 하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미국에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5] 하드파워영역에 대한 4개국 파워 평가(점)



주1. 0점은 영향력이 전혀 없다-10점은 매우 영향력이 크다로서 해당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군사력 평가에서는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 응답자의 응답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 II. 밖에서 본 한국, 한국의 소프트파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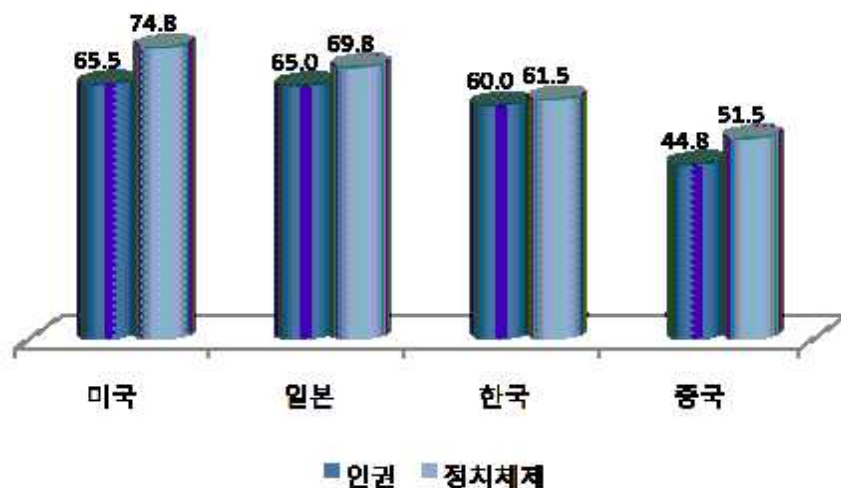
- 정치/외교 영역 : 안과 밖의 인식격차가 가장 큰 영역, 한국 스스로의 혐오 커
- 경제 : 해외 한국제품 브랜드가치 기대에 못 미쳐, FTA 상대국으로서 매력 미흡
- 문화 : “한류”의 힘,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휘, 미국인 별 매력 못 느껴
- 한국어의 필요성에는 5개국 평균 11.2%만이 공감

### 1. 정치/외교 영역

- 안과 밖의 인식격차가 가장 큰 영역, 한국 스스로의 혐오 커
- 정치, 외부평가 상대적으로 우호적, 한국인 자기평가는 가혹

객관지표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61점) 한국인 스스로의 평가는 매우 냉소적이어서 안팎의 시각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영역이다. 한국 정치체제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중국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은 불과 10%만이 자국의 정치 분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객관적 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국내정치 비판의식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인정을 대외적으로 상품화하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동남아 국가들이나 여타 지역의 개도국들이 벤치마킹하려는 사례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체제나 인권신장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내외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 각국의 인권 존중도 및 정치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점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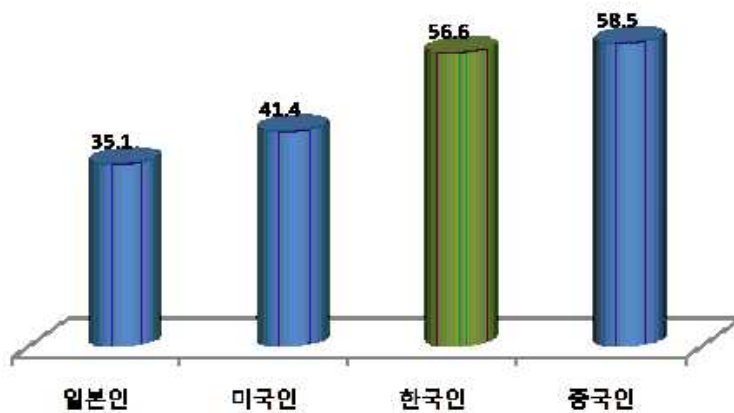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아주 그렇다로서 해당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인도네시아를 포함) 응답자의 응답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 외교, 동맹국은 냉담, 중국/동남아 우호 “북핵해결 한국역할 긍정” 미국 41%, 일본 35%
- 한국외교 장점은 “주권존중” 단점은 “국제적 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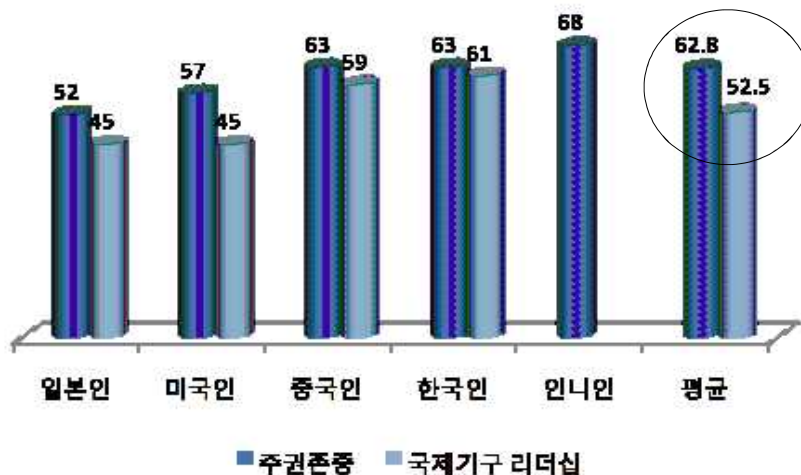
외교에서는 전통적 동맹/우방인 미국과 일본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에서 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41.4%와 일본국민의 35.1%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 중국국민들은 58.5%와 한국국민들은 56.6%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협력적 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인도네시아인 6.8점, 중국인 6.3점, 미국인은 5.7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일본인이 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국민은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미국인 4.6, 일본인 4.9) WTO·UN 등 국제기구에 한국이 리더십과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의 역할에 각각 4.5점을 준 반면 중국인은 5.9점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림2]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주. 1.매우 효과적, 2.어느 정도 효과적, 3.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4.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중 1과 2 응답을 한 비율 합한 값

[그림3] 타국의 주권존중과 국제기구 리더십에 있어 한국 평가(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아주 그렇다로서 해당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인도네시아를 포함) 응답국의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 2. 경제 : 한국의 소프트파워 뒤쳐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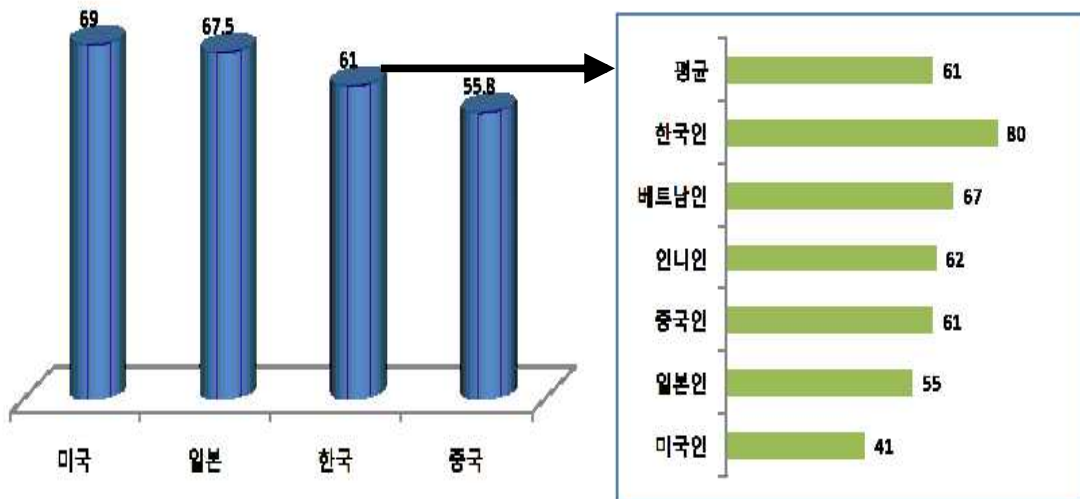
### · 해외 한국제품 브랜드가치 기대에 못 미쳐

- 한국제품 브랜드, 미국인 “싸구려”, 일본인 “중급”, 중국/동남아 “중/고급”-한국인 “고급”

### · FTA 상대국으로서의 매력 있지만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낮다

동아시아 4개국 제품 브랜드에 대한 6개국 국민들의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미제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일제가 67.5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점수가 이에는 못 미친 61점에 그쳤지만 나라별로 보면 미국(41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일본 55점, 중국 61점, 인도네시아 62점, 베트남 67점)에서는 한국제품이 어느 정도 구매의욕을 높이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 스스로 한국제품 브랜드 파워에 80점을 주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저질 제품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그림4].

[그림4] 6개국 국민들의 한·미·중·일 4개국 제품 브랜드 구매력 평가점수 평균(%)



주1. 0점은 구매의욕이 떨어뜨린다-10점은 구매의욕을 높인다, 변화없다는 5점으로 6개국 응답자의 응답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주2. 박스안은 한국제품 브랜드에 대한 6개국 국민들의 평가 점수

한편 한국 국민들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서 미국(75.6%) > 일본(73.6%) > 중국(66.7%)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보다 미국 및 일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와 중국경제의 선진성을 아직 낮게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 중국 국민들이 볼 때 매력적인 FTA 협상 선호국이라고 할 수 있다.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은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은 미국과의 FTA에는 84.4%, 한중FTA에 82.1%, 중일 FTA에는 78.9%가 동의하였다. 일본은 미국·중국·한국 중에서 한일FTA(63.4%), 일미FTA(63.2%)에 대한 동의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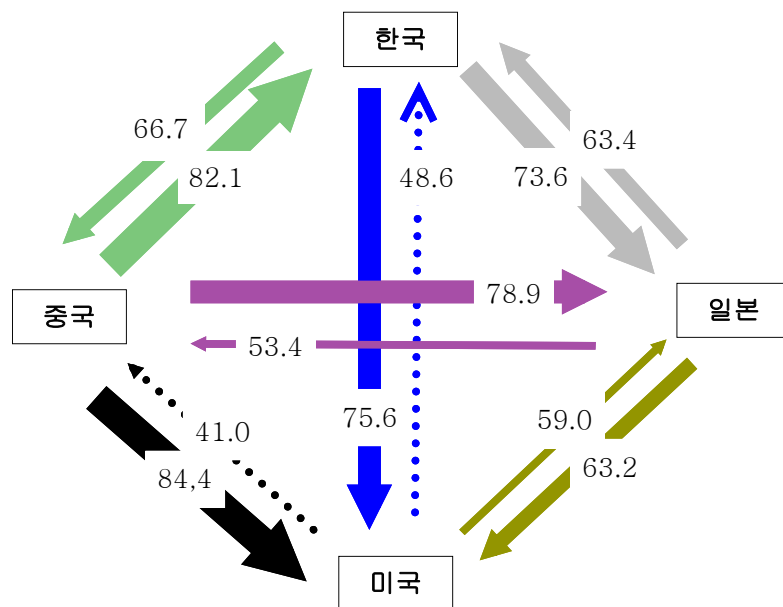




중국과의 FTA를 원하는 비율보다 10% 정높았다. FTA에 가장 소극적인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인은 미일FTA(59.0%)만 긍정적 응답이 많았고 한미FTA(48.6%)나 미중FTA(41%)에는 찬성비율이 과반수에 못 미쳤다.

FTA협상 체결 당사국 국민들이 상대국을 선호하는 강도의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경우는 미일간의 FTA로서 불과 4.2%p 차에 그친 반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한중 FTA로서 중국 국민은 FTA 협정국으로서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84.4%였던 반면 미국국민들이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41.0%에 그쳐 무려 43.2%p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격차가 작을수록 FTA 체결을 양국 사이의 상호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으며 FTA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국을 선호하는 것보다 자국이 상대방을 더 선호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날 경우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 역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방의 FTA 비토 여론이 협상체결에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와 한일FT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한중FTA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TA 대상국으로서 75.6%가 미국을 선호했지만 미국국민들은 한국을 협정대상으로 선호하는 정도가 48.6%로서 그 격차가 (-27%p)였고 한일FTA에 대해서도 격차가 -10.2%p로 한국국민이 일본국민에 비해 더 한일FTA에 적극적이다. 반대로 한국이 FTA협정대상국으로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66.7%였지만 중국이 한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82.1%로 15.4%p 격차가 나타났다.

[그림5] 동아시아 4개국 FTA협정체결 상대국 선호도 비대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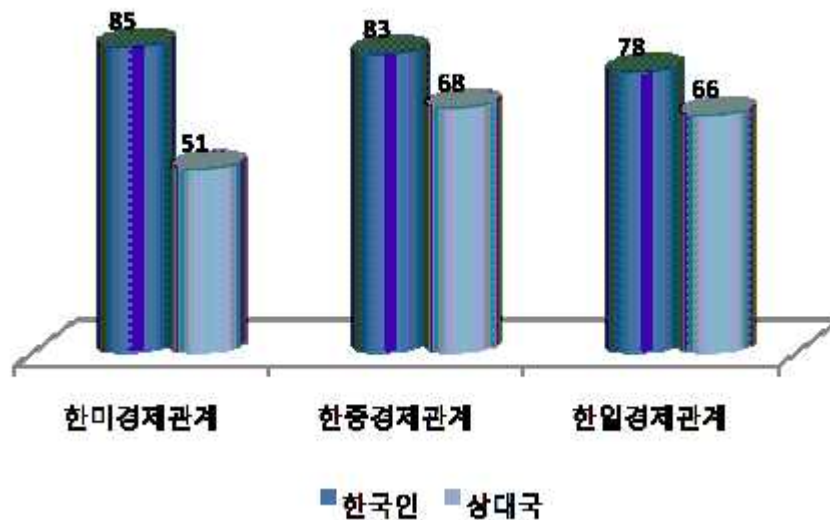
주1. 자국이 다음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중 해야한다고 답한 비율.

### 주변국, 자국 경제에 미치는 한국경제의 영향력에 덜 민감

특정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양국관계 변화에 보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그 민감도가 떨어질수록 경제적 협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데 나타나는 약점 중의 하나는 한국인은 주변국과의 경제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 반면, 상대국 국민들의 경우 자국과 한국사이의 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 대해 상대국 국민들에 비해 양국경제관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한미경제관계가 한국경제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5%지만 미국인들은 미국경제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한국이 한미경제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인은 83%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중국인은 68%가 중요하다고 답해 그 격차(-15%p)가 줄었다. 가장 격차가 적은 관계는 한일경제관계였다. 한국인은 78%, 일본은 66%가 양국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6] 양국경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vs. 미국 · 중국 · 일본인의 인식격차(점수)



주1.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0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한국과 상대국 국민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 3. 문화 “한류”의 힘,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휘, 미국인 별 매력 못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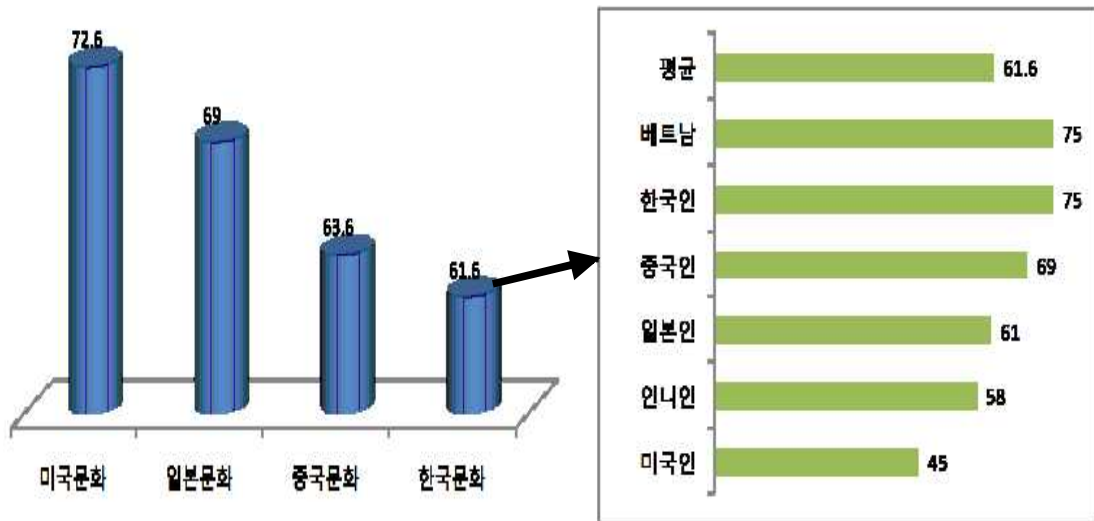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문화의 힘이 아시아권에서는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이 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중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견해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평균 61.6점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문화,



일본문화, 중국문화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중국(69점)과 베트남(75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에 냉담했던 일본인들도 다소 긍정적인 평가(61점)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58점),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냉담한 것(45점)이 사실이다.

한편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한국의 매력은 더 개발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서 일본(78점), 중국(66점)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50점을 주었다. 일본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는 미국(68점), 중국(58점), 한국(56점) 순이었다. 중국인들은 1순위로 미국(76점), 2순위로 일본과 한국(68점)을 꼽았다.

[그림7] 4개국 대중문화 매력에 대한 5개국 평가(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고, 각국 한국문화매력 평가시 자국민들의 응답은 제외했다.

[표2] 동아시아 4개국 매력적인 국제관광지로서의 상호평가(점수)

매력적인 관광지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인	미국(79)	중국(76)	일본(68)
미국인	일본(78)	중국(66)	한국(50)
중국인	미국(76)	일본(68)	한국(68)
일본인	미국(68)	중국(58)	한국(56)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고, 각국 한국문화매력 평가시 자국민들의 응답은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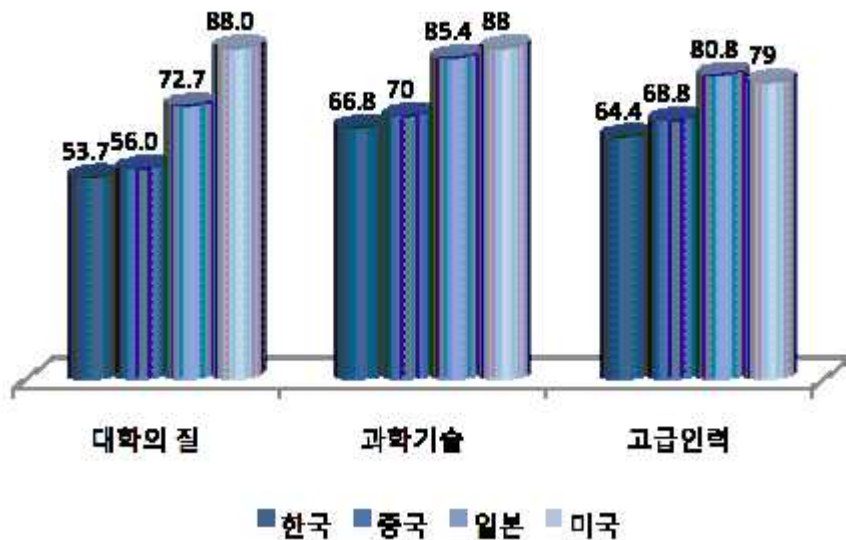


#### 4. 인적자원/기술/지식기반

자녀 성공 위해 한국어 중요하다 5개국 평균 11.2%에 그쳐 영어 중요하다 87.1%  
 한국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높고, 한국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평가는 낮아  
 한국인의 자녀유학국가 선호 미국 43.7%, EU40.7%, 일본 5.8%, 중국 5.3%  
 “한국으로 자녀유학 보내겠다” 미국인 0.6%, 일본인 2%, 중국인 9.5%, 인니 1.8%, 베트남  
 인 4.7%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미국의 우위가 돋보이는 영역이 인적자원/지식기반 영역이다. 좋은  
 질을 갖춘 대학보유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 한국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  
 다.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다. 그러나 과  
 학기술 분야와 고학력노동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  
 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은 이 영역에서도 미국 및 일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과학기술 분야나 고급인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각각 한국 스스로 77점과  
 82점을 주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변국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편이다.

[그림8] 대학의 질/과학기술/고급인력에 대한 동아시아 4개국 평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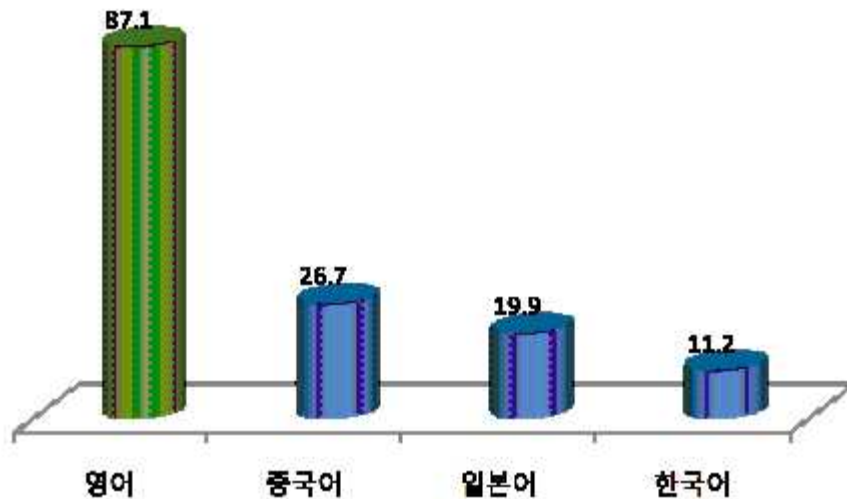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  
 산했고, 자국 평가는 제외했다. 대학의 질의 경우 한미중 중 자국 평가를 뺀  
 3개국 응답평균이며, 과학기술과 고급인력분야는 자국을 빼고 인니와 베트남  
 의 평가를 반영하였다.

한편 자신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각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물어 본  
 질문에 대해 5개국에서 평균 87.1%가 영어라고 답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반면 중국어  
 를 매우 중요한 언어로 꼽은 응답자는 26.7%에 불과한 반면, 일본어를 꼽은 응답자는  
 19.9%였다. 한국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2%에 불과했다.



또한 자녀의 유학국가로 선호하는 곳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중국인의 43.9%가 미국을, 23.3%가 EU국가를 선택했다. 한국국민들의 43.7%가 미국을, 40.7%가 EU국가를 선택했다. 외국인들 중 한국으로 자녀유학을 최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한 응답자는 중국에서 9.5%, 베트남에서 4.7%로 약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인은 2.0%, 인도네시아인은 1.8%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단 0.6%만이 한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림9] 자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언어(%)



주1. 각각에 대해 해당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

[그림 10] 자녀 유학 희망국

자녀 유학국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기타
미국인	-	51.7	9.2	0.6	2.9	33.3
일본인	36.5	38.8	-	2	4.2	18.6
한국인	43.7	40.7	5.8	-	5.3	4.6
중국인	43.9	23.3	7.4	9.5	-	15.9
인니인	29.2	8.4	38	1.8	5.7	16.9
베트남인	44.4	11.6	22.1	4.7	2.2	15